

볼리비아 정부, 노조와 새로운 갈등 요인

김영철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주요 내용

- (주요정책) 볼리비아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로 두 번째 보너스(Aguinaldo)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 (경제성장) 볼리비아는 경제성장이 연 4.5%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에 노동자들에게 두 번째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2013년 하였음.
- 올해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제성장률이 4.43%라고 발표했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 (경제 현황) 볼리비아 경제성장률이 4.5%를 밑돌.

- 볼리비아는 탄화수소 2.69%, 광업 0.3% 그리고 농업부분이 가뭄으로 3.2% 마이너스 성장으로 2015년 6월~2016년 6월 4.43% 성장률 기록했다.
- 볼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편이며, 볼리비아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6월 기준 12개월간 4.43% 성장은 전 세계 경제 불황기에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님.
- 지난 10월 13일 레네 오레야나(René Orellana) 개발기획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을 4.7%가 될 것이라고 발표
 -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석유가격 하락은 상반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언급
 - 더불어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외국원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외채로 인한 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함.
- 볼리비아의 외채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 수준인 6,811만 달러로, 안데스 공동체(CAN)이 제한하고 있는 50%보다 하회하고 있음.
 - 전문가들도 볼리비아의 이채 수준은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
- 지난 10년간 볼리비아는 공동체 사회 생산 경제모델(Community Social Productive Economic Model) 때문에 대외공공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 새로운 외국자본 투자 프로젝트와 생산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긍정적인 경제 사회 결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두 번째 보너스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음.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BOLIVIA: VARIACIÓN DEL PRODUCTO INTERNO BRUTO A 12 MESES POR TRIMESTRE, DE JULIO 2015 A JUNIO 2016
(En porcentaje)



De las 12 actividades económicas en las que se clasifica el PIB, 10 registraron variaciones positivas.

자료 : 볼리비아 통계청

2 원인 분석

▶ (갈등원인) 2013년 11월 사회주의 운동(MAS) 정부가 실질 GDP 성장이 4.5%가 넘어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 두 번째 보너스인 aguinaldo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 지난 10월 11일 경제와 재정부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장관이 올해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며 2016년 6월까지 12개월 간 경제 성장률이 4.43%를 기록하는데 거뒀다고 밝힘.
 - 경제와 재정부 장관 발표는 볼리비아 대외무역청(Instituto Boliviano de Comercio Exterior, IBCE)와 볼리비아 민간기업연맹(Conderación de Empresarios Privados de Bolivia, CEPB)은 환영하고 있음.
- 볼리비아 민간기업연맹의 쿠르프 코에닝페스트(Kurt Koenigsfest)는 2013년 이후 두 번째 보너스로 1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함.

- 볼리비아 노동자연맹(Central Obrera Boliviana, COB)의 구이도 미트마(Guido Mitma)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두 번째 보너스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모랄레스의 결정을 비판함.
- 두 번째 보너스가 정례화되면 임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노조에서는 임금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길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민간기업과 노조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임.
- 한편, 10월 11일 아르세 경제와 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7%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Álvaro García Linera)부통령은 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제2회 국제 라틴 아메리카 경제학술대회(II Congreso Internacional de Pensamiento Económico Latinoamericano) 개막연설에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면 8%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6% 임금인상과 3%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 노조의 입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2016년도 경제성장 기준으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4.5%의 성장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 이에 따라 노조는 경제 기구들이 예측하고 있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번째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 특히, 지난 10월 18일 로돌포 이야네스(Rodolfo Illanes) 내무부장관이 라파스로부터 80마일 떨어진 길에서 볼리비아의 비공식 파업자들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지역경제 둔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였음. 내부장관의 죽음으로 공개적인 혐오감이 증가하고 있음.

3

전망과 시사점

- ▶ 볼리비아 정부를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엔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도 2016년 볼리비아 경제 성장률을 4.5%로 예측했음.
 - o 유엔경제위원회는 2015년에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었음. 여전히 볼리비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의 평균보다 1.1% 높음.
- 볼리비아 대외 무역 부분은 다소 위축되고 있음. 2016년 8월에 수출액대비 23% 감소한 46억 8천만 달러였고, 양적인 면에서는 4% 줄었음.
 - o 특히, 전통적인 수출 분야에서 수출액이 49% 줄어들었으며, 광업은 1% 증가하여 19억 6천 달러로 증가했음.
 - o 그러나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5일 정부가 섬유회사 Enatex 폐쇄를 발표하면서 섬유노동자 1,000명을 해고하면서 라파스를 포함한 전국에서 공장노동자, 교사와 헬스케어제공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펼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볼리비아 노조연맹(COB)은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전국으로 파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음. Enatex는 모랄레스 정부가 폐업한 Ametex를 2012년 인수하여 설립한 것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전략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기업이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을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
-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계층과 대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위기로 보일 수 있음. 이런 전반적인 경제 성장 동향과 노조들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번째 보너스는 일시적인 경제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볼리비아 정부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볼리비아도 경제적인 저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임.
- 정부가 볼리비아 노조연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고, 노조연맹 위원회도 정부 협상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Enatex와 같은 충돌을 피하고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MERiCs**

출처

Latin America Weekly Report, Worldcrunch, Prensa Latina 및 보도자료